

민주평화당 창당발기인대회...분당 초읽기

중재과 행보 관심...安“오늘까지 기다려 달라” 요청 동교동계 고문단 합류...권노갑 “安, 통합 아닌야합”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 통합'에 반발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원회가 28일까지 총 2485명의 발기인을 모집했다. 국민의당 소속 현역 의원 16명도 발기인에 이름을 올리면서 국민의당 분당이 목적으로 다가온 모습이다.

조배숙 참추위원장과 최경환·장정숙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발기인이 전부 2485명이 됐고 현역 의원들은 현재로선 16명”이라며 “앞으로 창당대회까지 좀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현역 의원은 조배숙·박지원·전정배·정동영·장병완·유성엽·박준영·윤영일·정인화·최경환·김광수·김경진·김종희·이용주·박주현·장정숙 의원으로 지역구 의원 14명에 비례대표 2명이다.

현역 지지계좌 중에선 박홍을 북포시장과 고길호 신인근수가 민주평화당에 합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광역시·도의원 22명, 시·군·구의원 63명 등 총 85명의 지방의원도 국민의당 소속 지역위원장 33명이 창당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러 국민의당 창당 한 축이었던 동교동계 고문단이 대거 민주평화당에 힘을 실기로 했다.

안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27일 권노갑 상임고문에겐 전화로 걸어 “햇볕정책 정신을 승계할 테니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함께해 달라”고 설득했지만 권 고문이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배숙 위원장은 “(권 고문이)

앞으로 인간적인 인연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안 대표와) 정치적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것으로 인연을 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권 고문은 이후 성명을 통해 “정신과 목적이 다른 정당과 합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야합”이라고 안 대표의 바른정당 통합을 비판했으며, 정대철 상임고문은 이날 창당발기인대회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며 신당 창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상두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이 민주평화당에 합류하기로 했다. 창추위 측은 전국호남향우회가 호남 내 민심을 물론 호남 출신의 전국 유권자 민심을 대변하는 만큼 이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로써 안 대표의 '바른정당 통합 추진' 이후 맞불 격으로 진행돼 온 민주평화당 창추위는 일단 2000명을 훌쩍 넘는 창당발기인을 모집한데다 국민의당 창당 한 축인 동교동계와 범호남 지지층을 포섭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교섭단체 구성이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지적은 벌써부터 나온다. 특히 발기인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 16명 중 2명의 비례대표는 사실상 안 대표의 출당 조치가 없으면 신당에 최종적으로 합류가 어려운 만큼, 민주평화당은 추가적으로 8명의 의원을 포섭해야 교섭단체를 달성할 수 있다.

민주평화당이 교섭단체를 달성할 경우 통합신당 의석은 기존 국민의당 의석 수인 39석에서 28석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안 대표의 통합 추진이 '비즈니스 통합'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반면 민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한 조배숙(왼쪽 세번째) 창당추진위원장 등 참석 의원과 발기인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정대철, 권노갑 고문, 조 위원장, 박지원, 전정배, 정동영, 장병완 의원.

주평화당이 교섭단체 달성에 실패할 경우 이들 내부에서 이탈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때문에 당내 중재를 자처해온 중재과 의원들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는 모양새다. 현재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재과 의원은 박주선 국회의장과 김동철 원내대표, 이용호 정책위의장, 황주홍 의원 등이다. 반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중립지대 의원들의 행보도 이들 중재과 의원들의 행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재과 의원들은 지난 24일 안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 전 사퇴를 최종적으로 요구한다”며 “그러나 안 대표가 라디오 등을 통해 여전히 전당대회 전 사퇴에 선을 긋자 중재과 의원들 사이에서도 분개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중재과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이 두 통강 난 것은 안 대표의 책임이다. 매우 유감”이라며 “중재과도 이제 행방을 정해야 한다. 안 대표가 중재안을 몽개버린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일단 중재과 내부에선 “중재안이 최종 거부되면 안 대표의 통합열차엔 탈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재과 의원들이 모두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 결국 ‘중재안 거부’ 결론이 나올 경우 안 대표에 비판적인 지역구 여론을 의식해 민주평화당에 합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중재과인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제와선 열릴리진 몰이다. 통합 그 쪽으로 (추진)하는 건, 전당대회로 가고 하는 것들은 막을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중재과 내부에

서 아직까지 통일된 입장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안 대표는 일단 전당대회 전 사퇴론에 여전히 선을 그으면서도 중재과 반발을 감안해 “오는 29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안 대표가 극적 결단을 내릴 경우 중재과로선 통합신당 합류와 지역구 설득에 작게나마 명분을 마련하게 된다.

또 다른 중재과 의원은 “안 대표가 중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의견 통일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정치 협상이라는 건 안 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되고 그러는 것이다. 중재안 결과가 나오면 중재과 의원들이 어느 방향으로 행동을 통일할 것인가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춘경 기자



자유한국당

“평창에 6·25이후 北 사람 가장 많이”

자유한국당은 28일 “평창올림픽에 선수단 20여명과 예술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체제선전요원 700여명이 내려온다”고 밝혔다.

정태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6·25대 인민군이 내려 온 이후 북한 사람이 가장 많이 내려올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수많은 인원이 먹고 자고 이동하고 공연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텐데 그 돈을 어디서 무슨 명목으로 지급할지 아무도 모른다”며 “또 금강산에서 전야제를 하면 10여 년간 폐허로 방치됐던 시설을 개보수하고 야외무대 만드는 데 적어도 수십억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북의 김정은에게 한량없이 인자하고 관대한 이 정부는 또 아름다운 명분을 만들어 지급할 것이고 오히려 황궁에 할 것”이라며 “그 모든 돈이 남북협력기금이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돈이든, 지자체 돈이든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맘 흘려 낸 세금인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북에 약속하기 전에 국민에게 어떤 행사에 무슨 돈을 얼마나 집행할 것인지 사전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유엔(UN)결의안을 위반한 혐구 지급은 안 된다”며 “북에 아무리 잘 보이고 싶어도 행사비용과 접대비비용은 검약하고 대한민국의 보통시민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홈페이지 : www.i-honam.com
지역구감, 미래창조, 정론지침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국민의당, ‘쌍란’ → ‘국민과 함께 바른길로’ 백드롭 교체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은 28일 국회 당 대표실 백드롭(배경막)을 ‘시작합니다. 국민과 함께 바른길로’로 교체했다.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최근 이같은 문구가 적힌 백드롭을 당 대표실에 설치했다. 다음주 중에는 여의도 당사 외벽에도 같은 문구의 백드롭을 내걸 예정이다.

이번 백드롭에는 대형 리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상징색인 초록색과 하늘색이 절반씩 담긴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하나의 계란에 노른자가 두 개 들어있는 ‘쌍란’ 이미지를 넣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국민의당은 새 백드롭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바른정당은 아직 백드롭 교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바른정당은 ‘개혁보수의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를 백드롭 문구로 사용하고 있다.

가상화폐 靑국민청원, 정부 공식 답변 내놓는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문재인 정부의 공식 답변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답변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상황에 따라 홍장표 경제수석 등 청와대 인사가 나설 수도 있다.

답변 시기는 미정이지만 청원 마감일 30일 안에 청와대 수석, 각 부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한다는 기준에 따라 청원 답변은 다음달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의 청원 마감

일은 지난 27일이지만 지난 16일 답변 기준인 청원 추천자 20만명을 일찌감치 넘어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 청원에 답할 예정”이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화폐 정책을 경제부처에서 맡고 있지만 홍장표 경제수석 등 청와대 인사가 청원에 답할 수도 있다”고 밝혀 최종 조율 중임을 알렸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